

## 집안일.....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www.consult.or.kr

## 집안일 관심없고 대화 꺼리는 남편

결혼한 지 만 7년된 두 아이 엄마가 찾아와서 남편과의 성격차이와 불화로 이혼해야겠다고 했다. 남편은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집에서는 너무 말이 없고 아내가 말을 붙이려고 하면 혼자 있게 내버려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내 나름대로 대화를 해보려고 하면 항상 부정적인 대답이 먼저 나오고 애 좀 봐달라,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하면 자기를 부러먹는다고 마구 화를 내 결국 싸운다는 설명이다.

많은 아내들은 부부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집안일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정력을 일에 집중해야 하니까 집은 마음 편히 쉬 곳이라고만 여긴다.

이런 갈등에 대해 대부분 중년 아내들은 소득없고 상처뿐인 싸움에 지쳐서 포기하고 참고 산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싸우거나, 양갈음하겠다는 일념으로 살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그래도 안되면 이혼요구를 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한편 젊은 아내들은 이대로 살수 없다며 남편을 변화시키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이혼도 불사한다.

분명한 것은 여자가 남자 집안에 들어가서 그집



사람으로 적응하는 것이 결혼생활이던 시대는 지났다는 점이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가정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전통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맞춰가며 바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남편들은 자발적으로 아내와 가정생활에 관심을 갖고 부부 사이의 친밀한 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남편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아내가 그동안 멍든 가슴과 한을 표출하게 돼 심한 낭패감을 맛보게 되기도 한다. 아내들도 무조건 꺾꺾 눌러 참거나 거꾸로 남편에게 변화를 강요해 밀어붙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남편의 의견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 아내의 집안일 소중함 표현해요.

연애결혼을 하고 초등학교 아들들 둔 30대 전업

주부가 상담을 하려고 찾아 왔다.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권태기인지 남편을 가까이 하기도 싫고, 인생이 허무해서 더 이상 이렇게 보람 없이 살기가 싫어졌다고 했다.

부인의 이야기만으로는 이혼할 정도로 심각하고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상담자는 회사 일로 바쁘다는 남편을 아주 어렵게 만났다. 남편은 아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다 허락해 주며 살았는데, 별 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얘기해서 집 안 망신만 시킨다고 언짢아했다.

사회생활에 찌들어 있는 남편을 아내가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이 주부가 집에서 하는 일의 중요성을 남편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남편은 아내의 일상생활을 간섭하지 않고 무심하게 지내는 걸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회의를 갖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남편은 상담 이후 가족에게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표현했다. 이혼하고 사회적인 일을 해야 인간다운 존재가치와 보람을 찾을 것이라고 갈등하던 그 전업주부는 현재 행복하게 아내와 엄마노릇을 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끊임 없는 관심과 배려, 그것이 평범한 부부가 수십년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 기정은 아내 책임? 물어볼이면 갈등뿐

30대 후반의 김아무개씨가 아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담을 청해왔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아이도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고, 자기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한다는 것이다. 남편 이야기만 듣고는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렵게 아내를 만나보았다.

“남편은 날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애보는 보모나 밥짓고 청소하는 가정부 정도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식빵이 떨어져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챙기지 못하느냐고, 도대체 집에서 뭐하는 사람이냐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면 제가 이리진 않죠. 저도 하느라고 하는데도 가끔 반찬이 없다든지, 집이 지저분하다든지, 아이가 부딪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까지는 저도 참았는데 그날 아침은 이걸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참을 수 없더라고요.”

겨우 몇마디 말 때문에 이혼 운운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경험을 한 주부라면 김씨 아내의 심정에 공감할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김씨는 아무 생각 없이 아내에게 던진 말이지만 그 말은 아내에게 비수가 되어 큰 상처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부부간에 신뢰가 깨져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파국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업주부든 취업주부든 가정은 여자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는 팽배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집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면 곧잘 아내들을 몰아부친다.

저녁밥이 준비 안 된 경우 “당신, 나는 밖에서 식구들 위해 하루종일 일하다 왔는데 하루에 한번 집에서 먹는 밥도 못챙겨”라고 말하는 대신 때로는 아내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바빴나 보지, 우리 오랜만에 라면이나 끓여 먹읍시다. 오래 안 먹었더니 먹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울까? 별 것 아닌 것 같은 당신의 말 한마디는 아내를 감격하게 할 것이다. 아내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서 나타난다. **PRF**